

대구 시가지 발달의 시·공간적 특징과 지형의 관계: 1736년~1945년을 대상으로

송언근*

A Topographical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aegu Built-up Areas: From the Year 1736 to 1945

Un Gun Song*

요약: 읍성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대구 시가지 발달의 지형적 맥락을 밝히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36년에서 1906년까지 읍성시대 대구 시가지는 신천의 분류 하천인 대구천을 중심으로 읍성 서쪽 충적평야 상에 발달하였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경부선 건설이다. 1904년부터 대거 대구에 들어온 일본인은 읍성 북쪽과 동쪽에 거주하였다. 이들은 1907년 읍성을 파괴하여 대구의 중심부를 장악한 이후, 읍성 동쪽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개발하였다. 읍성 북쪽 충적평야는 경부선으로 인한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제방이 없어 범람의 위험이 있으며, 읍성 지역과 7m 전후의 고도차가 있다. 그리고 읍성 남동쪽 충적평야는 신천 좌안 충적평야 중 폭이 가장 좁다. 이들과 달리 읍성 동쪽은 (1)자연제방이 넓고 길게 발달하여 범람의 위험이 적고, (2)투수성이 좋아 저습하지 않으며 지하수가 풍부하다. (3)읍성 지역과 고도적으로 유사하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이곳은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다. 이 같은 지역적 지형 차이로 일제강점기 동안 대구 시가지는 대구천을 넘어 신천 쪽인 읍성 동쪽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주요어 : 대구읍성, 영남대로, 달성, 신천, 대구천, 충적평야

Abstract : This paper is on the topographical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Daegu built-up areas, from the era of Eupseong to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Some of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1736 to 1906, during the Eupseong period, Daegu built-up area developed on the alluvial plain west of Eupseong, centering on the Daegucheon, which is classified as Shincheon. The construction of GyeongBu Line railwa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owever, introduced a major change into the development. With the railway construction, many Japanese began to move into the north and east side of the Eupseong from 1904 on. In 1907 they demolished the Eupseong, and then expanded the built-up area toward the east of Eupseong, making it the main built-up area. The later eastward expansion of the built-up a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can also be explained topographically. The north side of the Eupseong was not a good candidate: it had no natural levee to protect the area from the floods, and had 7m elevational difference with the Eupseong area, in addition to its accessibility being hampered by the railway. The southeast side of the Eupseong was not a good candidate, either: it was the narrowest alluvial plain among the left alluvial plains of the River Sincheon. The east of Eupseong, in contrast, was (1)protected from the floods with the wide and long natural levee, (2)relatively moisture-free and underwater-rich with high water permeability, and (3)elevationally even with the Eupseong area. In sum,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aegu, both the westward development of the built-up area in the Eupseong era and its eastward expans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largely topographical.
Key Words : Daegu Eupseong, Yeongnam-daero, Dalseong, Sincheon, Daegucheon, Alluvial plain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song@dnu.ac.kr)

I. 서론

선조 34년(1601), 안동에 있던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되었다. 감영이 설치되면서 나타난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군량, 무기, 포목 따위의 군수품들이 대구로 쇄도하는가 하면, 군사, 행정 부문의 최고위급 지방관과 군 지휘관들이 상주하거나 내왕하면서 대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였다(김성우, 2004). 뿐만 아니라 감영이 설치되면서 대구에는 경상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 대구도호부 자체를 관리하는 행정 조직, 그리고 대구 진관의 군사, 행정을 위한 조직 등, 3차원적 행정체계가 수립되었다(예명해, 1991). 이 같은 변화로 경상감영 주변은 대구를 넘어 경상도가 중심지가 되었다.

한편 감영은 설치되었지만 이들을 보호할 읍성은 산성 중심의 방어개념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면서 남방에 대한 방어 소홀로 미루어지다 영조 12년(1736)에 오늘날의 대구역과 반월당 사이에 축성되었다(조형래·서치상, 2005). 이때부터 읍성 지역이 대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것이 2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다.

근대적 대구 시가지의 출발이자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핵심 지역인 읍성의 공간적 의미로 지리학(박찬석·이병곤, 1985; 박태화, 1985; 최석주, 1990; 1996; 2005), 역사학(김일수, 2003; 2015; 2016), 도시공학과 건축 및 토목공학(이미선, 2009; 정찬희, 2010; 김주아·김영, 2011; 김대중, 2012; 2019), 그리고 일본학(이기조, 2005) 등에서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읍성의 공간 구조, 읍성 철거와 필지 변화, 읍성 철거 이후의 가로 구조 변화, 그리고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사 특징을 밝히는데 맞추어져 있다. 반면 시가지 형성의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지형과 관련된 도시발달 연구는 없다. 지형은 농업, 도로, 식수, 주거 등 도시를 형성하는데 더 없이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 시가지 확장은 제어되기도 하고, 유인되기도 한다. 이는 지형이 도시 계획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다.

본 연구는 대구 시가지¹⁾의 핵심이 형성된 읍성 시대부터 오늘날 시가지의 토대가 마련된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그것의 시·공간적 특징을 지형적 맥락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04년 이전에서 1930년대 사이의 대구지도이다. 이들 지도에

서 시가지 범위를 찾고, 이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시가지의 공간적 특징과 이들의 시기별 변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도시 계획사와 당시대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시가지 확장의 시대적 맥락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별 시가지 확장의 공간적 특징을 친천 유로 변화와 연계하여 그것의 지형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II. 대구 시가지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1. 읍성 시대

대구 중심지였던 읍성은 그림 1²⁾에서 보듯이 친천 좌안 충적평야³⁾의 서쪽 가장 자리 부근에 있었다. 읍성이 이곳에 입지한 이유는 '이인좌의 난으로 인한 왕권 강화, 유사시 많은 백성들을 수용할 넓은 공간, 자연적 해자 역할이 가능한 대구천과 그것을 연하여 발달한 영남대로, 그리고 입란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평지성 축조'라는 입지 조건에 이 지역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송언근, 2020). 전술한 조건으로 읍성이 입지하면서 읍성 남쪽과 서쪽은 서부 침식저지에 인접하여 충적평야 폭이 좁다. 반면 읍성 동쪽과 북쪽의 충적평야는 넓다. 이 같은 읍성 입지는 대구 시가지의 시·공간적 발달에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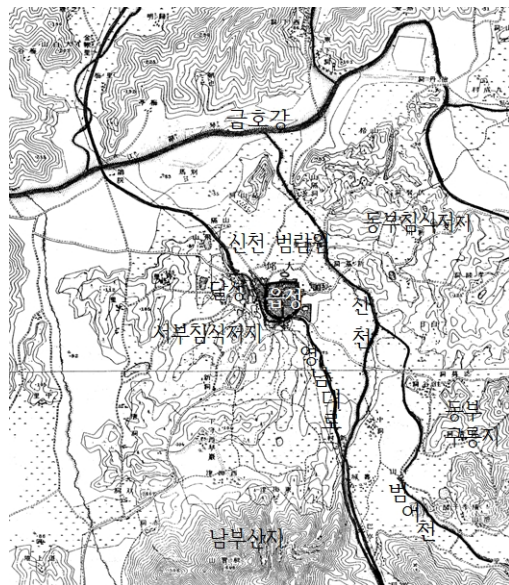


그림 1. 1895년에서 1904년 이전 대구읍성과 주요 지형 출처 : 남영우, 1997.

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1895년과 1904년 사이에 제작된 그림 1과 1903년 대구 시가지도인 그림 2를 볼 때,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대구에 들어온 경부선 건설 이전에 대구 시가지의 핵심은 읍성과 그 주변 지역이다.

경상도의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지인 읍성에는 주거, 상업, 행정, 사회 문화와 관련된 건축물이나 도로와 같은 도심 기능이 밀집하였다. 이는 읍성 내에 경상감영의 핵심인 선화당과 징청각을 중심으로 21개의 부속 건물들이 처마를 마주하여 있을 정도로 밀집하였고(김일수, 2016), 감영 남쪽은 거주 지역으로 많은 가옥들이 밀집했던(예명해, 1991) 것에서 알 수 있다. 읍성과 더불어 대구부의 또 다른 핵심 지역은 읍성 주변이다. 그런데 그림 1, 2에서 보듯이 읍성 외부에서 핵심 지역은 읍성에 연한 남서쪽과 서쪽의 충적평야이다. 읍성 외부는 공간적 제약이 없고, 읍성의 동서남북 문들과 연결되어 있어 어디이든 시가지가 발달할 수 있다. 그림에도 당시 시가지의 핵심은 읍성의 서쪽과 남서쪽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간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달성과의 관계이다. 기원전 2세기~기원후 4세기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는 달성은 삼국 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시대 초기까지 지리적이나 자연환경적으로 적합한 행정시설이나 군사시설로 이용되었다. 고려 정종(1035~1046) 때 봉군제로 달성 서씨들에게 사전(賜田)으로 내려져 그들의 세거지가 되었던 달성은 조선 세종 2년, 일본에 대한 방어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양

도를 요구받아 다시 군사 시설로 활용되었다. 선조 29년(1596)에 달성에 경상감영이 설치되었다가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소실되었다(옥희정, 2007). 이 같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달성은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구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다. 이는 달성 주변에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성으로 인해 이미 발달한 지역 인근에 대구 읍성이 축성되었다. 이로 인해 그림 2에서 보듯이 달성과 읍성 사이인 읍성 서쪽 지역은 더욱 발달하였다.

둘째는 영남대로와의 관계이다. 세종 때 달성의 군사 시설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개발된 동래-밀양-대구-선산-상주-문경-충주-한양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는 동래와 한양을 연결하는 영남의 핵심 도로이다. 한양으로 영남 각 지역의 물자가 올라가는 통로였던 영남대로에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보가 이동하였다(최영준, 2004). 이 같은 의미의 영남대로는 그림 1과 2에서 보듯이 읍성 이전 대구의 행정, 군사의 요충지인 달성과 새로운 중심지인 대구 읍성 사이에 발달했다. 특히 읍성 서문과 영남대로의 거리 150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다. 이로 인해 읍성 서쪽은 물자와 정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더욱 번성했다.

셋째, 서문시장과의 관계이다. 원래 서문시장은 읍성의 북문 쪽에 있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넓고, 다른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서문 밖으로 이전하였다(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이로 인해 서문시장은 영남대로에 인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부 서쪽의



그림 2. 1903년 대구 시가지도

출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 1:남문, 2:서문, 3:동문, 4:북문, 점선:영남대로.

성주와 고령으로 가는 길에도 인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문 시장 주변의 기존 취락들에 상업적 시설을 집중시켜 중심지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충적평야 넓이와의 관계이다. 전술한 세 가지 조건, 즉 달성, 영남대로, 그리고 서문시장의 관계가 보다 활발하게 작동하려면 달성과 읍성 사이의 충적평야가 넓을수록 좋다. 이 같은 조건에서 보면 달성과 영남대로, 그리고 서문시장에 가까우면서 충적평야 폭이 가장 넓은(700m 전후) 곳은 서문 밖이다.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

다섯째, 남문과의 관계이다. 읍성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문은 ‘영남제일관’이라 불리는 남문이다. 남문은 가장 웅장할 뿐만 아니라 신임 관찰사가 부임할 때 성을 한 바퀴 돌아 들어올 정도로 상징성을 갖는 문이었다(향토지리연구회, 2003). 이와 더불어 영남대로는 남문과 불과 20여m 떨어져 성 안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 때문에 남문은 영남대로와 성내·외를 연결하는 교통의 핵심 결절지 역할을 하였다. 남문의 위치적, 상징적 의미에서 보면 남문 밖에 거주지가 밀집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이 남문 밖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서부 침식저지도 인접해 있었다. 이로 인해 남문에 가까우면서 충적평야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읍성의 남서쪽에 거주지가 밀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요인들로 일본인들이 대구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1904년 이전, 대구의 중심 지역은 읍성과 그것의 서쪽과 남서쪽이었다.

2. 일제 강점기 시대

1) 경부철도 건설과 읍성 파괴까지

기원전의 달성에서부터 1907년 대구 읍성 파괴 전까지 대구의 정치, 군사, 행정, 사법의 중심은 성이었다. 때문에 성과의 접근성은 시가지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같은 의미의 성이 일본인들에 의해 변질되거나 파괴되었다.

고대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대구의 핵심 군사시설이었던 달성은 1904년 11월에 일본 수비대장 야마다와 일본 거류민단이 공원화 계획을 세워 1905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성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졌다(옥희정,

2007). 대구 읍성은 1907년에 일본인과 대표적 친일 관료인 박중양에 의해 파괴되었다. 두 사건은 성을 중심으로 발달하던 대구의 공간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성을 공원화하고, 대구 읍성을 파괴한 일본인들이 대구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93년이다. ‘히지쓰키와 무로’라는 두 명의 일본인이 남문 안에서 의료와 잡화상점을 운영한 것이 대구에 일인들이 거주한 시작이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약간의 현병만 남기고 대부분의 일본군들이 철수하면서 민간인들도 군대를 따라 이동하였다. 또한 청일전쟁이후 배일사상이 만연하고, 친러파로 불리는 관찰사 이윤용의 일본인들에 대한 견제 등으로 인해 대구에 일본인들의 활동은 주춤하였다(김일수, 2003). 이 같은 환경이 러일전쟁에 앞서 1903년 가을에 경부선 공사 속성 명령이 하달되면서 바뀌었다. 건설사무소도 기존의 영등포와 초량외의 대구와 조치원에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대구에 일본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04년 4월 말 700~800명에서 6월 말에는 1,000명 이상 늘었고, 가장 많았을 때는 3,300명에 이르렀다. 철도부설 공사가 끝난 1905년 5월 일시적으로 80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그 후로는 순조롭게 점증하는 과정을 밟았다(손정목, 1996).

일본인의 급증으로 1904년 8월 일본거류민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읍성 북쪽의 저습지대와 동문 밖의 넓은 평야에 정착하였다(손정목, 1996; 김일수, 2003; 김주아·김영, 2011).

일인들이 읍성의 북쪽과 동쪽에 입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성의 남문과 서문 쪽은 오래전부터 조선인들의 핵심 거주지였고, 둘째, 성내는 이미 세력있는 조선인들이 조밀하게 거주하고 있어 외래인의 성내 입지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재력도 되지 않았다(손정목, 1996). 셋째, 경부선 철도와 대구역의 위치이다. 특히 셋째가 중요하다.

경부선은 경산 고모역에서 그대로 남문 밖으로 직행하지 않고 한국인 원주민 거주지를 피해 고의적으로 대구의 동쪽을 크게 돌아 일본인 거주지인 북문 밖에 철도와 역사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노선 선결과 역사의 결정에도 일본인들은 남문 밖에 정거장이 세워진다는 낭설을 유포시켜 그곳의 지가를 급등시켰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북문 주위의 토지를 염가로 구입하였다. 그 후에도 철도용지라는 명목으로 역 부근에 유포되었던 땅도 대

부분 일본인 소유로 귀속하였다(손정목, 1996; 최석주, 1996).

1904년 경부선 건설로 대구로 몰려든 일본인들은 전술한 이유들로 읍성의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대구의 정치, 행정, 사법, 군사 의 중심지인 읍성 안과 성벽에 의해 분리되었다. 만약 일인들의 성내 접근을 막는 성벽이 제거된다면 이미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대구의 핵심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럴듯한 이유와 내부에서 도울 사람만 있으면 성벽을 부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다. 이를 구현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대표적 친일파인 경상관찰사 서리 박중양이다. 그는 일본거류민단의 '대구읍성은 장애요소이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분리시키는 장벽임으로 철거하자'라는 건의를 받고,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읍성을 철거하였다(이기조, 2005). 1905년 말과 1906년 초 철도국과 일본수비대에 의해 동문 부근의 성벽이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철거는 1906년 가을부터 중앙정부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박중양과 일본거류민단의 제휴로 이루어져 1907년 4월에 완전히 파괴되었다(손정목, 1996; 김일수, 2016).

성벽을 부순 자리에 1909년에 구 읍성을 일주하는 도로가 완공되었다. 그곳이 오늘날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이다. 또한 박중양은 1909년 읍성 내를 남북과 동서로 연결하는 십자도로까지 만들었다. 성벽이 파괴되면서 읍성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사라졌다. 일주도로와 십자도로가 건설되면서 명목상 구읍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시가지를 확장할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성벽 파괴의 실질적 효과는 성 밖에 머물던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대구의 핵심지역을 장악한 것이다. 성벽을 철거하면서 성내 지가는 1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일본인들은 일본의 정치적 비호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읍성 내 한국인 거주 지역을 서서히 잠식하여 일본인 거주 지역은 대구역에서 점차 성안으로 확대되었다(김대중, 2012).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읍성을 철거하고 만든 간선도로 주변의 토지와 가옥의 대부분을 소유하였다. 또한 대구역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 그리고 읍성 동부지역의 가옥과 토지까지 차지하였다. 읍성 주변의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동부 신천, 신암, 범어, 수성에서 동촌에 이르는 광역의 농토도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 손에 들어갔다(손정목, 1996; 김일수, 2016).

2) 읍성 파괴에서 해방까지

경부선 건설 때부터 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선점하고, 그것을 그들끼리 공유하였던 일본인들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읍성 동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토지를 대거 매입한 결과가 잘 드러난 것이 1910년대의 대구시구개정(大邱市區改正)이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도시의 도로, 교량, 하천을 근대적으로 정비하여 구획별로 건축물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일종의 도시재개발사업이다. 이를 토대로 대구 시가지 간선도로 건설 사업이 이루어졌다(최석주, 2005). 문제는 이것이 1911년 대구일본인거류민단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구시구개정은 일본인들만으로서 시가지 간선도로 예정선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경북도청을 거쳐 총독부로 보내졌다. 그리고 거의 원안대로 하달되었다(손정목, 1996). 그 결과를 그림 3의 1917년 대구 수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1913년에서 1917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구시구개정 사업의 결과 대구 시가지는 일본인들이 사는 구 읍성 내의 중북부와 읍성 동쪽에서 오늘날 봉산육거리(그림 3의 1)에서 교동네거리(그림 3의 2)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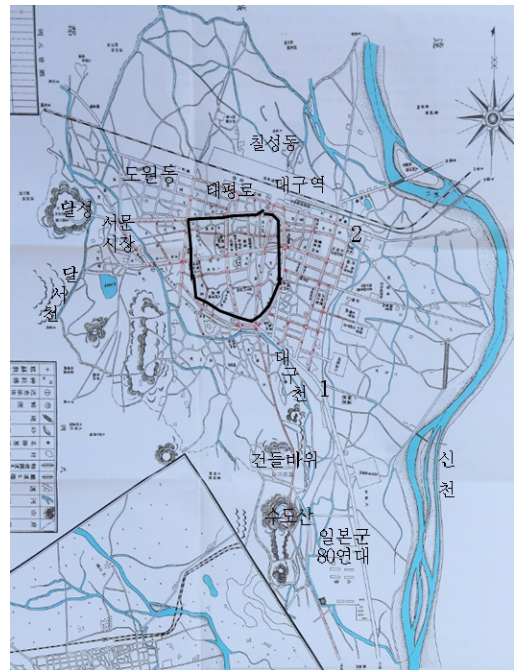


그림 3. 1917년 대구 수도지도

출처 : 대구광역시, 2006.

* 1:봉산육거리, 2:교동네거리, 실선:구읍성.

이로 확대되었다. 읍성 북쪽은 읍성에서 오늘날 태평로 사이로 시가지가 확장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직교형 간선도로들이 바둑모양으로 건설되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다. 반면 읍성 파괴 이후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지가 된 읍성 남쪽의 침식저지와 구 교통계인 영남대로와 서문 시장 인근 지역의 가로 구조는 전형적인 미로형⁴⁾이다.

전술한 시가지 확장으로 볼 때, 1910년대로 오면서 대구 시가지 토대는 읍성과 영남대로에서 읍성 북쪽과 동쪽, 그리고 경부선과 대구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가지 발전 방향도 읍성 서문 쪽에서 동문 쪽으로, 그리고 읍성 남문 쪽에서 북문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시가지 확장 경향은 시구개정이 끝난 뒤인 1924년 교통도(그림 4)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17년에는 현 봉산육거리에서 교통네거리까지 직교형 도로가 건설되었지만 1924년 지도에는 두 네거리(그림 4의 1과 2)를 넘어 동쪽의 동인동 지역으로 도로가 확장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1924년 대구교통도

출처 :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 1:봉산육거리, 2:교통네거리.

도로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도 일본인 주거 지역에 국한하여 구축하였다. 1917년 대구 수도 지도인 그림 5를 보면 당시 상수도가 설치된 곳은 읍성의 순환선과 십자로를 중심으로 읍성내의 작은 도로, 읍성 동문과 북문 밖의 일본인 주 거주 지역이었다. 반면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였던 읍성의 남문 밖과 달성 주변에는 상수도 시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도로, 상수도과 같은 도시의 기본 시설이 일본인들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시가지 확장은 더욱 일본인을 위한, 일본인에 의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를 1922년에 설계되어 1927년에 변경 처리된 '대구부 도시계획개요'에서도 알 수 있다.

도시 계획 기준 연도인 1921년 인구 45,475명을 25년 후의 목표 연도인 1946년 인구를 150,000명으로 예측하고 만든 1922년의 '대구부도시계획개요'는 의도와 달리 일본인과 조선인, 일본인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였다. 갈등의 핵심은 대구역을 현 지점에서 북쪽으로 545m 이동하는 것과 조선인 시가지 정비를 우선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대구역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던 일본인들 간의 갈등을 야기했고, 후자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을 낳았다. 결국 1927년 대구역사 이전은 무산되고, 조선인 시가지 도로 및 하수도 개설안은 폐기되고, 일본인 시가지를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처리되었다(김일수, 2003; 최석주, 2005). 그 결과를 그림 6의 1937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1937년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17년 읍성 동쪽의 봉산육거리(그림 6의 3)와 교통네거리(그림 6의 4)까지였



그림 5. 1917년 대구 수도 지도

* 지도에서 짙은 선이 수도선로이다.

던 시가지가 국지적으로 신천 인근까지 확장된 점이다. 특히 동인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도로가 신천까지 연장되었고, 경북대학병원(1928년), 동인초동(1935년), 조선제사공장, 산십계사공장, 그리고 많은 가옥들이 들어서 신천 인근의 충적평야까지 개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1937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경부철도를 넘어 북쪽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경부철도 북쪽은 철도변에 인접한 지역까지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이는 읍성 북쪽 충적평야보다 동쪽의 충적평야가 대구 시가지 개발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시가지 확장은 읍성 남쪽과 남서쪽, 남동쪽에서도 나타난다. 1917년과 1937년 대구 시가지 지역을 비교하면, 읍성의 동쪽과 북쪽만큼은 아니지만, 읍성의 다른 지역도 이전 시기보다 확장되었다. 읍성 남쪽은 1917년의 시가지가 현 동부교육지원청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1937년에는 남쪽의 남문시장 부근의 침식저지를 따라 확장되었다. 읍성의 남서쪽은 서문시장을 넘어 성주로 가는 도로가 있는 서부침식저지의 침식곡과 그 주변 침식저지

를 따라 현 대구중부소방서 주변까지 확장되었다. 이 지역은 성주와 고령으로 가는 도로 주변이어서 그러한지 읍성 남쪽에 비해 시가지 확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침식저지라는 지형 특성과 일본인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시가지 확장은 읍성 동쪽에 비해서는 국지적이다. 읍성 남동쪽은 경북중(1917년), 대구중(1921년) 등의 학교가 이미 있고, 편사제사공장 등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는 더디다. 이는 이 지역의 충적평야가 신천 좌안에서 가장 작고, 충적평야 중앙에 일본군 80연대가 위치하여 시가지 확장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937년에서 1945년 사이는 지도가 없어 이 시기의 시가지 확장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제정 공포로 1937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확정 고시된 대구의 도시 계획을 통해 1940년대 시가지 확장 특징을 일정 부분 추론할 수 있다. 당시 대구 도시 계획에 대해 동아일보(1935년 3월 30일자)는 ‘대구부 도로 정책 차별시설 통격-조선인촌은 악취가 코를 찌러, 부회에서 격론 수시간간’이라는 제목 하에 도시 계획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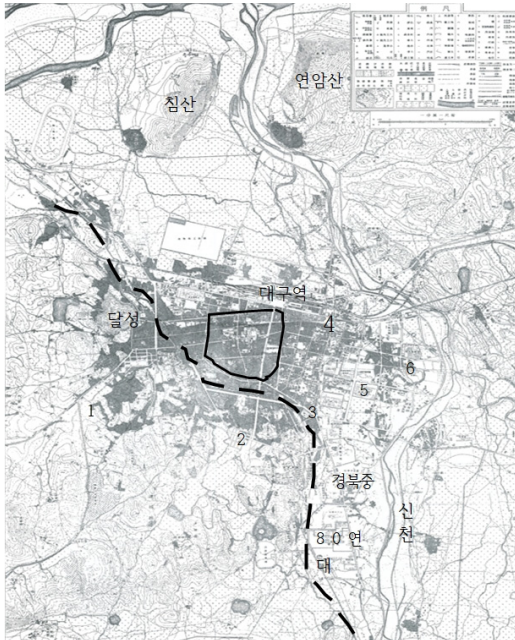


그림 6. 1937년 대구 지도(1/10,000)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중부소방서, 2:남문시장, 3:봉산육거리, 4:교동네거리, 5:경대병원, 6:동인초동, 실선:구읍성, 파선:충적평야 경계.

임상조, 서병화, 허지, 그 중에 임상조씨는 장시간의 통격의 연설을 하여 장내를 긴장케하였다. 그들이 열렬히 주장한 것은 남산정을 필두로 명치정, 신정, 달성정 일대의 대구 서남부에는 도로와 하수구가 아직도 원시시대의 그것을 방불케 하여 한번 비가 내리면 진흙 바다로 화하여 보행이 곤란케 됨은 물론 하수구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수천호가 절비하게 모여 있는 남산정에는 도로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만일 화재의 불행이 있을 때는 소방자동차의 내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한심한 시기를 가진 대구부에서 다액의 돈을 들여 운동장이나 아스팔트니 하는 것은 실로 기형적 시설의 모순이라 격론하고 전기 두 가지 예산에는 절대 반대를 표명하였다(동아일보, 1935년 3월 30일자).

이들 내용으로 추론하면, 1937년 3월에 고시된 대구 도시 계획에 의한 시가지 확장 역시 일본인들이 주로 사는 읍성 동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III. 시가지 확장의 시·공간적 특징과 지형의 관계

1. 읍성 시대 시가지 확장과 지형의 관계

읍성 축성 이후 가장 먼저 시가지화된 지역은 대구 읍성과 서부 침식저지 사이이다. 이곳은 신천 좌안 충적평야의 서쪽 가장자리이다. 이곳에 이어 시가지화된 곳은 읍성 동쪽을 중심으로 읍성 북쪽과 남동쪽 충적평야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의 시가지화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이루어졌다. 따라서 읍성 축성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200여 년 동안 대구 시가지의 발달은 신천 좌안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구 시가지의 토대인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송언근(2018)이 밝혔듯이 신천 유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맥락으로 시가지 발달과 관련된다. 하나는 시가지 형성의 지형적 토대인 신천 좌안 충적평야의 발달과 신천 유로 변화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시기별 시가지의 공간적 범위와 신천 유로 변화의 관계이다.

전자인 신천 좌안 충적평야의 발달과 신천 유로 변화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신천과 서부 침식저지 사이에 분포한다. 충적평야의 서쪽 말단과 서부침식저지의 경계부에는 하천의 측방침식으로 발달한 하식에들이 일련의 방향으로 규칙성 있게 연속적으로 발달해 있다(강경택, 2007; 송언근·강경택, 2017). 그것을 효성타운아파트, 수도산, 건들바위, 제일 중학교, 동산, 달성, 그리고 경일 중학교 부근에서 볼 수 있다(그림 7). 이들 하식에가 신천 좌안 충적평야의 서쪽 말단에 있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기에 신천이 이곳으로 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식에 동쪽과 현 신천 사이에 충적평야가 있다는 것은 하식에 쪽에서 흐르던 신천이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 신천의 퇴적작용으로 충적평야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언근, 2020).

후자의 시기별 시가지 발달과 신천 유로 변화의 관계는 신천 분류에서 분류한 하천들의 영향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전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읍성 시대 대구의 중심 지역은 읍성 및 그것과 서부침식저지 사이의 충적평야였다. 이곳에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대구천과 남산천 및 달서천

이 흐른다. 이들 하천 중 달서천과 대구천은 달성 입지에 아주 중요하다. 달서천은 달성의 동쪽 경계를 따라 흐르고, 달성 북동쪽은 달서천을 합류한 대구천이 흐른다. 두 하천의 측방침식으로 달성의 동쪽과 북동쪽은 높고, 긴 가파른 하식애가 발달하고, 두 하천은 자연스럽게 해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달성은 서부침식저지와 신천 충적평야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것이 이곳에 달성 토성이 축성된 이유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구천은 대구 읍성 이전 대구의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이던 달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구 중심은 임진왜란을 맞이하면서 달성에서 읍성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읍성이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읍성 지역이 현재의 대구역과 반월당 사이에 입지한 근본적 원인은 송언근(2020)이 밝혔듯이 충적평야의 특징과 신천 분류 하천의 하계망 특성 때문이다. 즉 읍성지역은 신천 좌안 충적평야에서 폭이 가장 넓고, 분지 내에서 망류하도처럼 흐르는 대구천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또한 미시적으로 보면 신천의 분류 하천인 대구천이 해자로서 역할이 가능한 것과는 관련이 깊다. 대구천은 달성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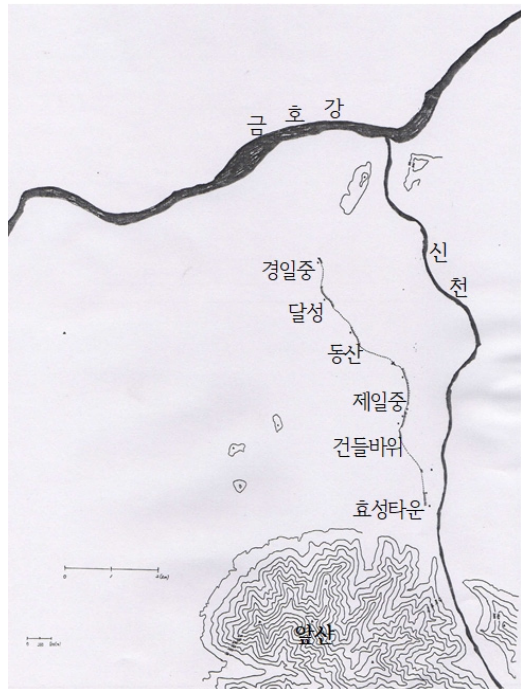


그림 7. 효성타운에서 경일중까지 하식에 위치 출처 : 강경택(2007) 재인용.

아니라 대구 읍성 입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구천은 읍성 시대 시가지 발달에 또 다른 핵심 요인인 영남대로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영남대로는 남부 산지의 하곡에서는 신천의 우안을 따라 이어지다가 하곡을 벗어나는 부근에서 신천을 건너 신천 좌안 충적평야로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영남대로는 대구천을 연하여 발달하였다. 대구천 흐름 방향이 곧 영남대로 방향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읍성 서쪽 시가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인 서문시장 역시, 그림 2에서 보듯이 대구천의 좌안을 따라 발달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대구천은 읍성 시대 대구 시가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천 분류하천인 대구천은 대구 시가지의 초기 발달, 특히 읍성 시대 대구 시가지 발달의 자연적·인문적 토대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제 강점기 시가지 확장과 지형의 관계

읍성 파괴 이후 대구 시가지 확장은 일본인들의 주요 거점 지역인 읍성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방향으로 시가지가 확장된 일차 시기는 대구시 구개정(大邱市區改正)이 일어난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이다. 이 시기에 대구 시가지 특징은 그림 3에서 보았듯이 읍성 동쪽으로의 확장이다. 당시 시가지의 경계는 건들바위에서 대구천에서 갈라져 나온 대구천의 분류하천까지였다. 이 하천은 건들바위에서 북류하여 향교 쪽



그림 8. 1918년 신천 하계망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건들바위, 2:향교, 3:중앙중교.

으로 흘러갔다(그림 8). 이 하천을 ‘대구천 2’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읍성 파괴 이후 1920년까지 대구 시가지는 지형적으로 읍성 서쪽 충적평야에서 읍성 동쪽 충적평야로 이동하였고, 하천으로는 대구천 본류(대구천 1)에서 대구천 분류 하천(대구천 2)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20년에서 1945년 사이는 대구 시가지가 구읍성 동쪽 충적평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때는 1920년대 후반이다. 신천 분류 하천인 대구천의 유로 변화가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읍성과 서부 침식저지 사이로 흘렀던 대구천은 여름철이면 범람하여 읍성, 향교, 그리고 주거지를 위협하였다. 이에 영조 2년(1778), 대구 판관 이서는 신천에서 대구천으로 분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동교 부근에서 수성교 부근까지 제방을 쌓았다. 이때부터 신천으로부터 대구천으로 물의 유입은 감소하였다. 신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량은 줄었지만 관개를 위해 일정량은 흐르고, 앞산과 서부침식저지에서 공급되는 물은 여전하였다. 때문에 여름이면 어김없이 범람하였다(송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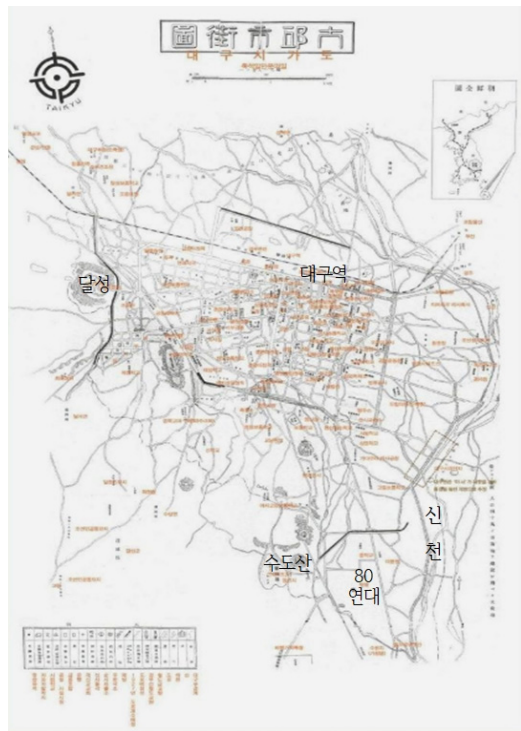


그림 9. 1928년 대구 시가지도

출처 :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2017). 이는 ‘매년 여름에 남산정, 봉산정, 덕산정, 명치정 일대 홍수가 빈번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어 올해 여름 내에 대구치수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는 동아일보(1927년 1월 14일자)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치수계획은 수도산 부근에서 일본 80년대 쪽으로 대구천 유로를 변경하는 인공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천의 물을 신천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그림 9). 이 사업이 1927년에 완공되어 읍성과 향교 쪽으로 흐르던 대구천은 하천으로서 기능을 소실하였다. 이는 신천의 분류하천인 대구천의 유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여름철마다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구읍성 동쪽의 충적평야 개발에 장애가 되었던 대구천과 그것의 분류하천이 제거되면서 시가지 개발에 보다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읍성 동쪽 충적평야의 시가지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반면 읍성 동쪽에 비해 읍성 북쪽과 남동쪽 충적평야의 시가지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일어났다. 읍성 남동쪽은 신천 좌안 충적평야 중 규모가 가장 작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군 80연대가 1915년 12월에 충적평야 상에 설치되었다. 이것이 남동쪽으로 시가지화를 지연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읍성 북쪽 충적평야에서 시가지화가 더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경부선이 읍성 북쪽에 동서로 연결되어 경부선의 남쪽과 북쪽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1922년 대구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던 대구역을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545m 정도 이동시키려던 도시계획의 무산된 점이다. 마지막은 경부선 남북간의 지형 차이이다. 이들 중 앞의 두 가지는 인문적 요인이고, 마지막 하나는 지형 요인이다. 이들 세 가지 요인 중 읍성 북쪽 충적평야의 지형 특징과 시가지 확장의 관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⁵⁾에서 보듯이 경부선 철도가 신천을 가로지르는 약 600m 구간에는 자연제방이 없다. 이는 신천과 범어천 유로 변화와 관련 깊다. 즉 신천 분류는 유로 변화 과정에 대구역 부근에서 동에서 서로 흘렀다. 이로 인해 진밭골에서 발원하여 신천 우안의 충적평야와 동부구릉지 및 침식저지의 경계 부근을 따라 흐르던 범어천도 중앙중고등(그림 8의 3)에서 대구역 방향의 신천 쪽으로 동에서 서로 흘렀다(송언근, 2018). 이로 인해 이 구간에는 자연제방이 발달하지 않았다. 또한 그림 8에서 보듯이 대구역 북쪽의 칠성동 부근에는 신천에서 분류한 하천들이 서쪽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흘렀다. 자연제

방의 미발달과 신천 분류 하천들은 평수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홍수 시에는 신천에서 흘러들어온 많은 양의 물들이 범람하면서 주변 지역을 침수한다. 이로 인해 읍성 북쪽은 여름철 홍수 시 범람이 반복하였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부선 이북의 칠성동 고도는 33~34m인데, 경부선 이남의 동인동과 태평로 일대 고도는 40~42m이다. 따라서 경부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 간의 고도차는 6~8m에 이른다(황상일·윤순옥, 1998). 특히 대구역 부근의 등고선 40m 지역은 고도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선상지의 일반적 특징과 달리 경사변환부처럼 40m 등고선 상·하류 간에 뚜렷한 고도차를 보인다(송언근, 2018). 이 같은 지형적 조건들이 경부선 북쪽의 시가지화를 더디게 하는데 일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읍성 동쪽은 평탄한 충적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신천을 따라 자연제방이 넓고 길게 발달해 있다. 이로 인해 송언근(2017)이 밝혔듯이 읍성 동쪽 충적평야에는 10년 주기의 홍수에도 신천 물이 자연제방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지형 조건이 경부선 철도 위치와 결부되면서 대구 시가지 개발은 읍성 북쪽보다 동쪽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신천 좌안 충적평야의 지역별 지형 특징과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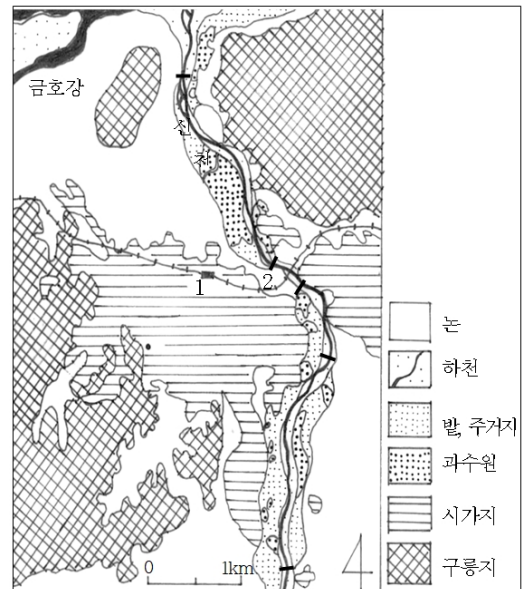


그림 10. 1938년 신천 주변 토지이용도

출처 : 송언근(2018) 재인용.

* 1:대구역, 2:칠성교.

어 침식저지에 비해 충적평야의 개발이 보다 빠르게 일어난 것은 충적평야의 퇴적층 특징도 영향도 있다.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상동교 부근에서 남부 산지의 하곡 사이에 간혀 흐르던 하천이 넓고 평탄한 분지지로 들어오면서 유로변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 지속적인 퇴적 작용으로 발달한 선상지성 충적평야이다(홍경희 1966;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이기은, 2005; 송언근, 2018). 이로 인해 퇴적층은 분급이 불량한 사력질이 5m 전후로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투수성이 강하고, 저습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우지이자 한밭이 잦은 대구 기후에도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선상지의 특성으로 지하수가 풍부하다. 이들이 어우러져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농업뿐만 아니라 거주지로서도 좋은 조건을 가졌다. 이런 이유들이 어우러져 음성 동쪽 충적평야는 일본인들의 핵심 거주지가 되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 동안 대구 시가지가 음성 동쪽 신천 좌안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 음성이 축성되었던 1736년부터 오늘날 대구 시가지의 토대가 형성된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대구 시가지의 시·공간적 발달의 지형적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 시가지의 출발이자 토대이고, 핵심인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신천 유로 변화로 발달하였다. 그 위에 신천에서 분류한 대구천을 비롯한 분류하천들이 1920년대만 하여도 망류하도처럼 흘렀다. 이들 두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우지이자 한밭이 빈번한 대구 분지에 농업과 도시를 발달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농업적으로 보면 신천 본류의 유로 변화가 넓은 충적평야를 만들었다면 신천 분류하천은 대구 분지 속의 충적평야에 관개용 물을 공급하여 농업을 발달시켰다. 또한 신천 본류의 유로 변화와 신천 분류하천인 대구천은 대구 음성, 달성, 영남대로의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뿐만 아니라 신천 유로 변화로 발달한 신천 좌안 충적평야는 ‘선상지’라는 지형 특성으로 배수가 양호하여 저습하지 않고, 지하수가 풍부하여 일본인들의 핵심 주거지로 이

용되었다. 이런 지형적 조건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을 위한 시가지 개발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형 특성에 토대한 대구 시가지 발달의 시·공간적 특성을 보면 1736년 대구읍성 축조에서 1907년 음성 파괴까지의 대구 시가지는 대구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로 인해 대구 시가지는 음성과 서부침식저지 사이의 충적평야 상에서 발달하였다. 경부선 철도 건설로 일본인들이 음성 북쪽과 동쪽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음성이 파괴되면서 대구는 음성 시기와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음성의 북쪽과 남동쪽 충적평야도 개발되지만, 핵심은 음성 동쪽 충적평야이다. 이는 이 지역은 평야가 넓고, 범람의 위험이 적으며, 대구의 핵심인 음성과 고도적으로 유사하며, 거주지로 적합한 퇴적층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음성 축조 이후 1945년까지 200여 년 동안 대구 시가지 발달은 신천 좌안 충적평야, 특히 음성 동쪽 충적평야의 개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토대를 제공한 것이 신천 본류와 본류의 유로 변화이다.

註

- 1) 본 연구에서 시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시가지는 일차적으로 도시에서 주거, 상업, 공업, 의료,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건축물들이 집적된 곳이다. 때문에 시가지는 건물이 준비하게 이어진 도시적 양상을 보이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현대로 오면서 시가지에는 고층 건물이 많은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집적하여 그렇지 않는 지역과 구분된다. 이런 특성으로 지도에서는 전술한 시가지적 특성이 두드러진 범위를 정하여 이들을 하나의 색상(검은색 또는 붉은색 등)으로 나타낸다. 반면 그렇지 않는 지역은 개별 집들을 점이나 작은 면으로 나타낸다.
- 2) 그림 1의 지형도는 명치 28년(1895년)의 지형도 도식을 기준으로 제작하였고, 지도에는 경부선이 없다. 때문에 이 지도는 1895년에서 1904년 사이의 대구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 3) 신천좌안 충적평야는 그림 1의 영남대로에서 신천 사이의 신천 범람원이다.
- 4) 일본 지리학자 木内信藏의 저서 ‘도시지리학’에는 불규칙적인 가로 구조를 가진 도시의 대표적인 예

로 대구를 들고 있다. 대구가 세계적으로 예시가 될 만한 미로 구조라는 뜻이다(홍경희, 1966).

5) 그림 10에서 신천 좌우의 밭, 주거지, 과수원은 자연제방이다.

참고문헌

강경택, 2007, “대구천 고유로의 지형 발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중, 2012, “일제강점기 대구시 필지상황 추적과 주변필지 변화에 관한 연구: 북성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중, 2019, “20세기 초 철도 부설과 성곽 훼손에 따른 성곽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우, 2004, “조선시대 대구 읍세의 팽창 과정” 대구사학, 75, 65-98.

김일수, 2003, “일제강점 전후 대구의 도시화과정과 그 성격” 역사문제연구, 10, 83-121.

김일수, 2015,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59, 257-287.

김일수, 2016, “근대전환기 경상감영의 변동과 훼손” 민족문화논총, 64, 35-58.

김주아·김영, 2011, “대구시 도심부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9(2), 59-71.

남영우, 1997, 「구한말지형도(1/50,000)」, 서울: 성지문화사.

대구광역시, 2006, 「상수도사업 100년: 1906-2005」, 대구: 명인문화사.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제 1권(통사)」, 대구: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박찬석·이병곤, 1985, “대구 도시계획 소고” 지리학논구, 10, 129-140.

박태화, 1985, “대구 도시화”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17, 27-43.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대구신(新)택리지」, 서울: 북랜드.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송언근, 2017, “이공제와 신천 분류 하천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804-819.

송언근, 2018, “대구 신천 유로의 지형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480-495.

송언근, 2020, “신천 유로 변화와 대구 읍성 입지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320-335.

송언근·강경택, 2017, “1910년대 신천 좌안 축적평야의 하계망 특성: 건물바위에서 상동교 사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568-585.

예명해, 1991, “조선시대 대구읍성에 관한 기초연구(2)” 국토계획, 26(4), 21-39.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도판편)」, 서울: 금운한편집.

옥희정, 2007,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은, 2005, “대구 분지의 지형 분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조, 2005, “일제하 대구부 시가지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선, 2009, “근대기 대구읍성의 필지변화 연구: 중앙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찬희, 2010, “도시 성장과정에서 상업중심지 형성양상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형대·서치상, 2005, “영조초년 진주와 대구읍성 축조공사 연구 -새로운 성세 및 공사방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1(3), 81-90.

최석주, 1990, “일제하 대구부의 도시구조” 지리학논구, 10·11 합본호, 143-170.

최석주, 1996, “대구시 도심부의 가로망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1(3), 593-612.

최석주, 2005, “일제강점기 대구의 도시 계획” 지리학논구, 24, 68-89.

최영준, 2004, 「영남대(한국의 옛길)」,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향토지리연구회, 2003, 「지리로 읽는 대구이야기」, 대구: 영한.

황상일·윤순옥, 1998, “대구분지의 자연환경과 선사 및 고대의 인간 생활” 대한지리학회지, 33(4), 469-486.

홍경희, 1966, 「대구사: 도시지리학적연구」, 대구: 문화출판사.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자, “년래로 현안이든 대구치수공사 하절기전에 완성계획”

동아일보, 1935년 3월 30일자, “대구부도로정책통격 조선인촌은 악취가 코를 찌러 부회에서 격론수시간”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교신: 송언근, 42411,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19(대명
동),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unsong@
dnue.ac.kr)

Correspondence: Un Gun Song, 42411, 219 Jungang-daero,
Nam-gu, Daegu,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unsong@dnue.ac.kr)

투고접수일: 2021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일

